

Y정체성으로서의 기독교 여성주의

백소영 (강남대학교 기독교사회윤리학, 연합회 법인이사)

YWCA는 어떤 존재인가? '법인'이란?

일정 시간 이상의 준비 과정을 거친 조직이나 기관의 경우 대부분 설립 초기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는다. 설립자나 설립준비단의 설립 목적과 대외적인 존재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직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새로 유입되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이 포함되면서 조직 내부에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조직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조직의 '정체성' 을 재확립하는 작업이다. 정체성은 내가, 혹은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것이다. (유성희 <한국YWCA 100년의 여정>, 290)

Y운동은 '프로그램들' 의

총합인가?

1987년 YWCA 외부 전문가 진단

YWCA의 목적은 이념적인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통한 목적 실현에 있어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YWCA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목적 실현보다는 자기 유지의 성격을 띠는 경향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사회단체의 전문화 및 분업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YWCA 활동의 자양성은 전문성의 결여를 내포하고 YWCA 정체 의식(Identity) 혼란을 잠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YWCA는 다시 한 번 YWCA의 정체 의식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 **먼저 YWCA의 활동 목적이 현실을 개혁하는 것인지,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인지를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유성희, 292-93)

1987년 한국 YWCA연합회 정체성 선언

한국 YWCA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며 온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됨을 인정하게 하고 구세주이신 예수의 교훈을 자기 생활에 실천하게 함으로써 평화와 정의의 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여성 운동체'로서의 YWCA의 정체성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여성의 자아의식을 고취하며 여성의 능력 계발을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인류의 형제애를 추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의 사랑의 교훈을 실천하는 '기독교 운동체'로서의 YWCA 정체성은 소외된 이웃과 비인간화해 가는 사회현상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사회변화 및 사회개혁의 차원으로 심화시키는 데 있다.(유성희 293-94)

'따로 노는' 여성 주체화와 신앙화

당시의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볼 때 직원수양회는 교회의 부흥회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은혜 가운데 새로운 결단"(1982), "성경 읽기를 습관화하고 기도를 호흡하도록 하며"(1983),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 것"(1986) 등 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은 당시 직원 수양회의 분위기와 내부 평가를 반영하고 있다. ... 결과 이 이시기 형성된 기독교 중심의 집합적 정체성은 한국 YWCA의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활동하던 활동가들은 이를 통해 강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기독교인 회원들을 전도 대상으로 설정하고 직접적인 전도 활동에 매진한 활동은 내부적 결속을 강화시킨 반면, 일반 시민과 비기독교 회원들이 YWCA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저해하는 결과도 낳았다. (유성희, 348-49)

W와 C는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 '기독교 여성주의'의 필요성

운동 주체가 '여성' 이라는 의미

페미니즘이란, 현 체제 밖의 시선이고 사유이고 언어이다. 5천년 가부장 역사 가운데 가장 대규모로, 가장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에 있었으나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참여한 바 없고, 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 위치 역시 스스로 결정한 바 없었던 여성들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주의' 이다. 그러나 가부장적 시스템을 옹호하며 개인으로서 "명예 남성"의 삶을 선택한 생물학적 여성들의 의미 추구는 '체제 안'의 사유와 행동이기에 페미니즘이 아니다. 또한 생물학적 남성(그리고 그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든)이라 해도, 주체로서의 자기 주장이 현재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반영되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그 역시 은유로서는 '여성'이기에 그의 자기 해석은 페미니스트적 성찰에 포함되어야 한다. (백소영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20-21)

'기독교인' 그리고 '페미니스트' 최용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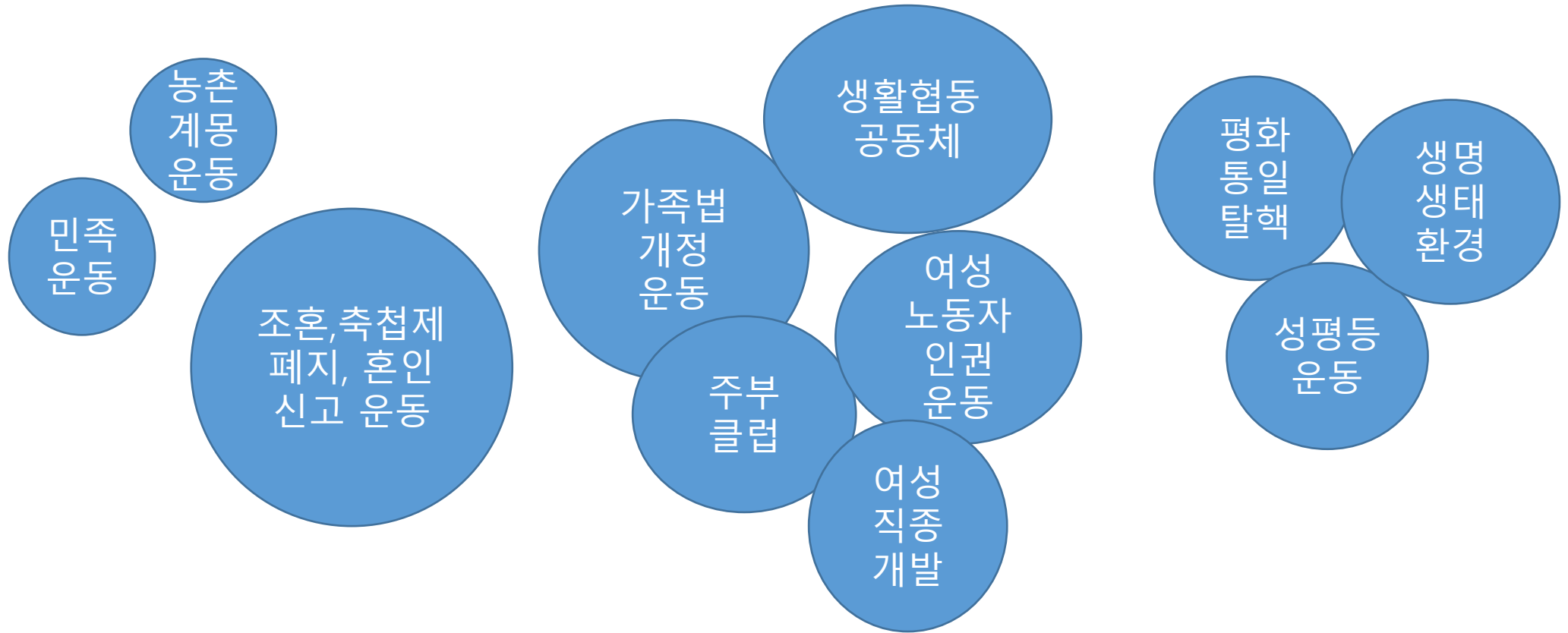
예로부터 우리 조선 여성들은 5천 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사회의 대세는 고사하고 자기들의 개성조차 망각하고 말았다. 이로 보아 남녀 양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회가 남성만의 활동과 노력만으로 원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각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는다.** 중등 교육을 마친 우리들은 각각 자기의 이상을 향하여 각자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제 그 활동의 첫 계단은 무엇보다도 농촌 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하여야 옳을 것인가. (루씨여자보통학교 졸업사 중, 백소영, 273)

“라이프 스타일 페미니즘”을 넘어서...

개혁적 페미니즘은 그들에게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다. 그들은 일터에서 남성 중심주의의 속박에서 벗어났고 좀 더 주체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성차별주의가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존 체계 내에서 최대한 자유를 누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한 곳은 일은 착취당하는 종속된 하층 계급 여성들이 떠맡을 터였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여성들의 종속을 수용하고 오히려 이와 결탁함으로써 기존 가부장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성차별주의와도 동맹을 맺은 셈이다. (벨 훅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32쪽)

'기독교 페미니스트'란?

1, 2, 3기의 아젠다들



'기독교 여성주의' 담론의 생산

-기독교 유산의 여성주의적 재독, 재건, 재해석, 재구성 작업
"살아내고 살려내는 기독교 페미니즘"

- 1) 재독 (예: 미리암의 노래)
- 2) 재건 (예: 향유부는 여인)
- 3) 재해석 (예: 돕는 배필)
- 4) 재구성 (예: 교회 리더십의 재구성)

'기독교 여성주의' 담론의 확산

교회 '여성'(약자)들을 향해: "살아내라"

신자유주의적 적자생존의 세상을 향해: "살려내라"

내용: '반역'의 언어

방법론: '번역'의 언어

그 모든 사랑이 가져오는 것!

To say "I love you" is to say that you are not mine, but rather your own. To love you is to advocate your rights, your space, your self, and to struggle with you, rather than against you, in our learning to claim our power in the world. To say "I love you" means—**let the revolution begin!**

(Cater heyward, *Our passion for justice*, 93)